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8027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4월 4일 (음력 2월 28일) 금요일

돈 살포… 고소·고발

또 '추한 선거'

총선 D-5 "해남 현금 3천만원 살포" 수사

18대 총선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광주·전남지역 선거판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막판 득표전이 가열되면서 후보들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데다 후보와 유권자들간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악의 경우 후보자 사법처리와 재선거까지 예견되고 있어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전남도 선관위는 3일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의 A후보와 A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현금 3천만원 가량을 살포한 혐의로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에앞서 지난 2일 A후보가 측근을 통해 해당 선거구의 B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는 제보를 입수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관련기사 3면〉

목포시 선관위도 이날 목포에 출마한 C후보의 사무실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물품을 수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거한 물품은 C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D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며, 부정선거감시단이 전날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가져왔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광주 광산구 갑에 출마한 E후보도 이날 경쟁자인 F후보를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 혐의로 광주시 광산구 선관위에 고발했다. E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의뢰자, 표본크기, 일시, 표본오차 등을 밝혀야 함에도 F후보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전남경찰청도 3일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대 후보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G후보 선거사무장 한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순천경찰도 이날 'H와 함께 하는 사람들' 등 99개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의 홍보영상물을 게시한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31일엔 무소속인 광주 남구의 I후보 측이 상대인 J후보 측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I후보 측은 "J후보 측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전화를 함에 따라 내용을 녹음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전남도 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3일 현재까지 모두 21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이 가운데 16건을 고발하고 10건을 수사의뢰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軍 부재자 투표 행렬

18대 총선 부재자 투표가 시작된 3일, 31사단 장병들이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된 광주시 북구 오치동 삼일교회 앞에서 투표순서를 기다리며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이번 부재자 투표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관련기사 4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건희 삼성회장 오늘 소환

특검, 사법처리 주목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4일 오후 2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관련기사 7면〉

이 회장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1995년 대검 중수부의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 이후로 13년만이며 에버랜드 사건이 고발된 때부터는 7년10개월만에 처음이다.

특검팀이 '의혹의 정점'인 이 회장을 전격 소환했다는 것은 비자금과 경영권 세습, 정 · 관계 로비 등 주요 의혹 분야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의혹들에 대한 수사결론과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소형위성발사체 상단부

국내 기술로 개발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국내 첫 소형위성발사체(KSLV-I) 상단부가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백홍열)은 3일 "오는 12월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KSLV-I의 상단부를 국내 기술로 개발, 이날부터 최종 종합운용 시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SLV-I은 총중량 140t(추진제 130t), 총 길이 33m, 직경 2.9m, 추력 170t급 2단형 발사체로 위성과 덮개·고체엔진이 포함된 2단 상단부는 국내 기술로, 액체엔진이 포함된 1단 하단부는 러시아와 공동 개발했다.

최종 종합운용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오는 9월 상단부를 나로우주센터로 이송할 계획이며 1단 발사체는 10월께 러시아에서 국내로 반입된다. /박정욱기자 jwpark@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외국인 노동자 실태 본격 탐사보도
아시아 국가 현지 취재 제 2신

코리안 드림을 이룬 몬주르씨(오른쪽)가 자신이 경영하는 의류도매점에서 동생(왼쪽), 종업원들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한국에서 3D노동을 하던 몬주르씨는 점포 4개와 의류공장을 소유한 사업가로 변신했다.

불법체류자→사장 '인생 역전'

'코리안 드림' 이룬 방글라데시 몬주르씨

한국 생활 8년 4,300만원 모아 귀국
이젠 의류 공장·점포 넷 운영 사업가

다카=안현주 기자

"내가 '코리안드림'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8년 동안 일하다 지난해 12월 귀국한 몬주르 고센(32·방글라데시)씨는 "고생도 많았지만 한국은 내 인생을 바꿔 준 '희망의 땅'이었다"며 "이젠 한국에서 벌어온 돈과, 배운 기술을 조국 방글라데시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 외곽에 위치한 불바리아 거리. '코리안드림'의 주인공인 몬주르씨를 만나기 위해 그의 사업장이 있는 시티플라자 건물을 찾았다. 한국에서 귀국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한 몬주르씨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몬주르씨 가족은 이 상가에만 의류 생산 공장과 함께 4개의 의류도매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몬주르씨가 한국에서 보내준 돈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몬주르씨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것인 지난 1999년 10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탓에 그는 40만 다카(한화 580만원)를 브로커에게 건네주고 관광비자를 받아 비행기에 올랐다. 방글라데시 중산층이 한 달에 5천다카 정도를 벌고 있으니 그로선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한국은 꿈에 그리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처음 일을 시작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이 넘게 두 달 가까이 일했지만 사장은 월급을 주지 않았다. 먹는 것도 힘들었고, 한국 날씨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다. 거기에 가져온 돈마저 떨어지면서 난방도 못한 채 몇 달을 지내야 했다.

두번째 직장인 한 가구공장에서도 몬주르씨의 수난은 계속됐다. 5개월 가까이 일했을 때쯤 사장은 공장의 기계를 모두 챙겨서 야반도주를 했고, 몬주르씨는 밀린 월급 150만원을 받지 못했다.

불법체류자 단속이 뜨면 산속으로 도망 다니며 불안해 떨던 그가 지쳐갈 무렵이던 2002년 초. 한국 정부는 월드컵을 계기로 3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2면에 계속〉

방글라데시는?

▲인구=1억4천만명 ▲면적=14만4천㎢ ▲1인당 국민소득=451달러(2004) ▲한국 취업 노동자 수=6천550명(한국내 5위)